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 여야, 호남 민심 쟁탈전 치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 개최
국힘, 광주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 2030세대 표심 공략
정의당, 광주에서 본격 출발 ... 국민의당, 수완동서 첫 유세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 막을 올리면서 여야와 여야 후보들은 22일 동안 치열한 총력 유세전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 표심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여야는 선거운동 첫날, 광주에서 일제히 대선 출정식을 갖고 선거 막판까지 호남 민심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운동 시작일인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출정식에는 이낙연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친문(친 문재인)·친 이낙연 지지층의 결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 정권의 적' 수사라는 정치 보복성 발언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20대 표심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 선대위 출정식을 연다. 출정식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출정식과 현장 연결해 다원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60대와 2030세대 표심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특히 지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에 '울안'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광주와 전남을 다시 찾아 호남 표심에

뺨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16일 광주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이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 광주와 전남에서 상주하면서 호남 표심 구애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광주에서 본격적인 대선 운동을 시작한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형일자리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을 방문하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그는 또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앞에서 첫 유세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광산구 수완동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서구 유스퀘어광장, 북구 전남대 후문 등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부 상행선에, 국민의힘 윤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경부 하행선에 각각 몸을 싣고 국토를 종단하면서 전국적인 세물이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와 대전,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부산을 출발점으로 정한 것은 비교적 취약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 민심 공

략이라는 전략적 포석과 함께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운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부산항에서 물류가 도착해 경부선을 타고 죽을라오듯 경제 도약의 의미를 일점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부 상행선을 타는 사이 경선 경쟁자였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정세균 전 총리는 전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 등 각각 본인의 연구 지역에서 세물이를 시작한 뒤 서울에서 이 후보와 만나 합동 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는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간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정계광장에서 도심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부선에 대해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아시아 하이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부산에서 자동차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동남아 유럽까지 뻗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를 '아시아 하이웨이'란 별칭에 담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 이강현씨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에 이강현(60·사진) 전 KBS 아트비전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전당

장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 전당장은 연세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PD)를 시작으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그동안 드라마 제작과 콘텐츠 유통, 전시 및 공연 행사 개최 등 방송과 문화산업 전반을 두루 섭렵한 콘텐츠 전문가다. KBS 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을 맡아 콘텐츠 국내의 유통과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KBS 아트비전 부사장으로 케이팝 축제 등 국내외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등 방송과 문화 현장에서 한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 전당장은 한국PD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언론상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임명장을 수여한 황희 문화부 장관은 "신임 전당장은 문화산업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 3000명대 초입기 ▶2면



중국은 알까? 금보다 빛난 '우정의 메달' ▶18면



굿모닝 예행 - 코로나 시대 광주 관광 ▶22면

코로나 격리·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일반국민 4차접종 검토 안해"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면역저하자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수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접종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패스'에 4차 접종을 연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4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4차접종을 결정할 것은 고위험군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며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수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603(수완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용어미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